

## 무슨 권세로? (By what Authority?)

### ■ 이종윤 원로목사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네가 무슨 권세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세를 주었느냐” 고 힐문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무슨 권세로 살고 있는지를 모르고 있다. 연초에 곰의 발바닥을 푹 과먹었더니 한 해 동안 그 힘으로 산다는 이가 있다. 젊은 시절 운동으로 단련된 근력으로 산다는 이도 있다. 사돈의 8촌이 도와줘서 그 힘으로 산다고 하는 이도 있다. 돈의 힘, 지식의 힘, 권력, 군대의 힘으로 개인과 가정과 국가가 안녕을 보장받고 지탱해 간다는 생각을 가진 이도 있다. 이 세상은 전쟁터와 같아서 힘의 대결(power struggle)을 통해 더 강한 힘을 가진 이가 더 작은 힘을 가진 이를 짓누르고 승리자가 된다. 그러나 초대교회는 세상의 힘에 의한 심한 핍박을 받았으나 오히려 더 왕성하게 부흥했다. 도대체 교회는 무슨 힘을 가졌기에 환난과 핍박도 교회를 죽이지 못했을까?

### 헤롯의 권세

초대교회 시대에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으려면 먼저 유대교에 입문하고 할례를 받고 유대교 전통을 답습토록 했다. 그러나 집사 스테반은 산헤드린에서 유대인들을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자며 항상 성령을 거스리고 의인을 잡아 죽인 살인자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은 자로 맹공을 가했다. 그 결과 스테반은 순교자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복음은 계속 확장되고 널리 퍼져나갔다. 초대교회 지도자 중 한 사람인 야고보까지 살해되었다. 헤롯 아그립바 1세는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기독교를 박해하고 야고보를 잡아 죽였다.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자 그는 베드로까지 체포하고 죽이려 했다. 헤롯의 불의한 권세는 미친 사람 손에 들려진 칼과 같아 그 결과가 엄청났다. 유대인 600만 명을 가스 챔버에 넣어 살해한 아돌프 히틀러, 3,000만 명의 생명을 직간접으로 희생시킨 구소련의 스탈린, 자기 백성 300만 명을 아사시킨 북한의 김정일 같은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권세를 자기 욕심과 목적을 위해 오용하거나 남용한 이들이다. 이들은 정의가 힘이라 믿는 것이 아니라 힘이 정의라고 한다. 그러나 이 같은 권세는 하나님에 의해 반드시 심판을 받게 된다.

### 신앙의 힘

사도 베드로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고 가르쳤다. 헤롯의 칼에 죽임 받기 전날 밤 그는 두 군인 틈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깊은 잠이 들었다.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긴 베드로는 죽고 사는 것이나 원수들이 두렵지 않았다. 잠자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천사가 쳐 깨워 쇠사슬을 풀어주고 따라오라 하며 옥문이 저절로 열려 그를 한 거리로 끌어내고 천사는 떠났다. 베드로는 비로소 주께서 하신 줄 알았다고 했다. 자연세계에서 초자연적 능력을 믿는 신앙의 힘은 실로 막강하다. 같은 박해와 환란 속에서 야고보는 순교자가 되었고 베드로는 투옥되었다가 자유인이 되었다. 베드로가 할 일이 남았기 때문이라 설명해서는 안된다. 사도행전 12장 이후에는 베드로의 이름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는다. 결국 어떤 이는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어떤 이는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교회에 유익을 주는 신앙의 힘이 우리에게도 있어야 한다.

뒷면으로 계속➡


앞면에서 계속

### 기도의 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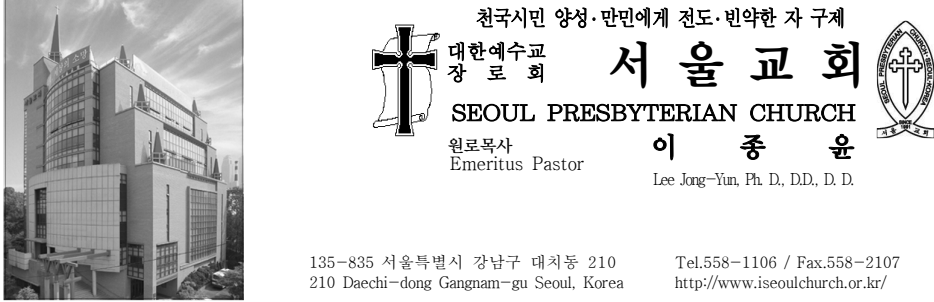
베드로가 옥에 갇혔고 그를 위해 교회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 돈 뭉치를 싸들고 권력자를 찾아다녀야할 법한데 그런 돈도 없고 설사 있다 해도 구차하게 그런 짓은 하지 않았다. 성도들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기도했다.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열렬히 같은 제목으로 기도했다. 기도의 힘은 과연 위력적이었다. 베드로가 마가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찾아 온 것이다. 그들은 기도했지만 믿지를 못하고 로데의 보고에 미쳤다 했다. 아니면 그의 천사가 온 것일 것이라 했다. 우리의 작은 기도소리를 우리 하나님은 무시하거나 못들은 체 하지 않으신다. 오늘도 우리는 초자연적 능력을 가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의 힘과 핵무기보다 더 강력한 기도의 무기를 갖고 살 수 있는 성도가 되자.

-한국장로신문 [제 1431호] 2014년 10월 11일 발췌-

English Worship Service	
[Room 802, 11:20 am]	[Presider : Deacon Kichan Yoo] [Preacher : Pastor Euichang Kim]
* Call to Worship .....	John 4:24 ..... Presider
* The Apostles' Creed .....	Congregation
* Doxology .....	1 .....Congregation
Congregational Prayer .....	Sister Lumie Hwang
Hymn .....	2 ..... Congregation
Scripture Reading .....	John 6:32-40 ..... Presider
Welcome/Fellowship .....	Congregation
Offering .....	Congregation
* Offering Hymn .....	50 ..... Congregation
* Offering Prayer .....	Presider
Anthem .....	Congregation
Sermon .....	"The Message of the Loaves" ..... Pastor
* Hymn .....	484 (Be Thou My Vision) ..... Congregation
* Benediction .....	Pastor
* Lord's Prayer Song .....	635 ..... Congregation
(* Please stand if you are available)	

<b>우리의 비전 (vision)</b>	① 세계 복음화(Evangelization of the whole world) ② 교회 천국화(Kingdomization of the whole church) ③ 문화 기독교화(Christianization of the whole culture)	서울교회 QR코드 

<b>부 목 사</b> 서명철 장석남 조원영 <b>교육전도사</b> 김은숙 박미라 최승원	<b>협동목사</b> 김의창 심우진 전재홍
<b>선 교 사</b> 강아금·주하나, 전광혜(서아시아), 이은준강혜정, 양재성이현주, 버섯잔(카자흐스탄) 스브로토바로이, 조남혜, (방글라데시), 이계을박병진(캄보디아), 전호진(미얀마), 조병연김희정, 우상식김경옥, 이삭, 비스티파. 사지, 예녹(인도), 정상진홍성임(필리우), 서광중이성일(인도네시아), 이재훈박재연(마다가스카르), 김용진황경혜(말리위), 김영호·서향정(러시아), 허창범현미순(일본), 김낙형·오정녀(케냐), 김종일백순미(터키노동자), 필리몬, 프로산도, 수레시, 수바쓰, 이경엽, 알로롱, 비시누뵈도, 보디소도, 린롱, 수란존(방글라데시), 감태식, 윤영모, 이금순, 김명일, 김택수(순교)	



## “ 하나님을 찬송하라 ”

### ■ 시 42:1-5

시편은 책상 위나 평화로운 전원에서 쓰여 진 것이 아니라 다가오는 죽음 앞에서 고백한 신앙입니다. 시편은 절망 속에서 부른 노래입니다. 피난 중에 구원을 절규한 외침입니다. 시편은 이 세상을 떠나 하나님의 집을 향하여 가면서 부른 순례자의 노래입니다. 일찍이 순교자들은 시편을 외우면서 하나님의 품에 안겼습니다.

다윗 시대 그라 자손이 쓴 시인 시편 42편은 하나님의 성소가 있는 예루살렘의 시온을 바라보며 노래한 시편입니다. 시편 42편은 시인이 시온을 멀리 떠나 있는 중 대적들의 핍박과 조롱으로 인한 고통과 슬픔에 대한 노래입니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라고 하는 사람들의 조롱의 말을 듣고 하나님의 전에서 멀리 떨어져 있는 자의 슬픔과 탄식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편 42편은 그와 같은 처절한 상황 속에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뢰하는 신앙을 고백하며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였습니다.

실로 인간은 창조주 하나님과의 가장 궁극적인 관계 속에서만 그 존재 이유와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떠나서는 결코 참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시인은 1절에서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다” 라고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시인은 자신이 당하고 있는 고난의 문제를 어느 누구에게도 호소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만 자신의 문제를 토로하였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일까요? 팔레스타인 지역은 건기가 되면 비가 잘 오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더욱이 남부 지역은 거의 사막이기 때문에 건기에는 물을 구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시인은 그렇게 가물 때 사슴 한 마리가 목이 너무나 말라서 물을 찾느라고 온 사방을 누비고 다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루 종일 이 언덕 저 언덕 골짜기마다 다니면서 물을 찾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시인은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그래. 내가 낙망이 될 때 하나님을 찾는다면 어떤 식으로 찾을까? 바로 저 사슴처럼 찾아야 되겠다.’ 고 깨달았던 것입니다. 시인은 하나님을 찾는 자신의 갈급한 심정을 마치 목마른 사슴이 갈증의 고통을 이기지 못해 절박하게 시냇물을 찾으며 울부짖는 모습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처럼 눈물로 음식을 삼는 고난과 슬픔의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고 오히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목마른 심령으로 밤낮으로 주를 찾는 시인의 모습은 자신의 존재의 이유와 삶의 행복의 근거를 오직 하나님에게서만 찾는 성도의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실로 온 세상으로부터 버림을 받고 배랑 끝에서 서있는 것과 같은 외로움과 두려움과 고통의 순간에도 잠잠히 하나님만을 애타게 갈망하는 영혼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영혼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만남으로써만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은 구원의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물을 보관하지도 못할 터진 웅덩이를 팅습니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렘 2:13).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를 판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삶의 기쁨도, 구원도 얻지 못하고 다 망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다른 곳에서 구원의 생수를 찾는 자들의 결국은 이와 같습니다.

맺는 말

오늘 이 땅에는 사람을 구원할 것 같은 많은 종교와 사상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날이 갈수록 더욱 자신의 삶에 목말라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정말 인생의 목마름을 해결하고 구원에 이르기를 갈망한다면 생수의 근원이신 하나님께로 나아와야 합니다.

하나님이 아닌 것은 그것이 아무리 위대한 인생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인생의 유일하고도 영원하신 생수의 근원이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들을 반드시 물리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의 검입니다. 성령의 검으로 우리의 자아 속에 도사리고 있는 낙심과 불안과 같은 우리 안의 대적을 제거하고 오직 하나님만 앙망하는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

지난 주 서명철 목사 설교요약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 4:24)**

주 일 예 배		
Sunday Worship Service		
시 간	인 도	기 도
Time	Presider	Prayer
I 오전 9시	조원영 목사	송인권 장로
II 오전 11시 20분	조원영 목사	이강진 장로
III 오후 2시	장석남 목사	오치열 장로

입례송 Prelude .....	오르가니스트
예배예의 부름 Call to Worship ...시 116:12-14...	인 도 자
기 원 Invocation .....	인 도 자
* 찬 송 Hymn .....2(6).....	다 합 께
* 신앙고백 Apostles' Creed .....	다 합 께
* 성서교독 Responsive Reading .....50(시 116)...	다 합 께
* 송 영 Doxology .....	1(1) ... 다 합 께
기 도 Prayer .....	말 은 이
찬 송 Hymn .....408(466)...	다 합 께
성경봉독 Scripture Reading ...시 46:1-11...	인 도 자
성도의 교제 Member's Fellowship .....	다 합 께
봉헌 Offering .....	다 합 께
* 봉헌송 Offering Hymn .....634(70) ...	다 합 께
* 봉헌기도 Offering Prayer .....	인 도 자
찬 양 Anthem .....	찬 양 대
새가족 환영 Welcome to Newcomers .....	다 합 께
설 교 Sermon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	서명철 목사
(God is our refuge.)	
* 찬 송 Hymn .....70(79)...	다 합 께
* 축 도 Benediction .....	설 교 자
* 주기도송 Lord's Prayer Song .....	다 합 께

찬 양 예 배	
오후 5시	· 인도: 조원영 목사, 설교: 이종운 원로목사
목 도 .....	다 합 께
성 시 .....	사 55:7-8 ..... 인 도 자
찬 송 .....	20(41) ..... 다 합 께
기 도 .....	장윤기 집사
성 경 .....	계21:1-18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완성된 임마누엘" ... 설 교 자
* 찬 송 .....	419(478) ..... 다 합 께
* 축 도 .....	설 교 자
* 주기도송 .....	다 합 께

수 요 예 배	
오후 7시	· 인도, 설교: 조원영 목사
기 도 .....	김복희2 권사
성 경 .....	삼상 22:11-23 ..... 인 도 자
찬 양 .....	찬 양 대
설 교 .....	"나의 뜻이로다" ..... 설 교 자

새벽기도회	
오전 5시30분 본당	· 피아니스트: 홍혜란, 김양언, 박수강, 김복희2
설 교 .....	조원영 목사

◆ 너희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라 (엡 5:19) ◆  
CANTANTES ET PSALLENES IN CORDIBUS VESTRIS DOMINO

찬 양 대					헌 금 송				
예 배	찬양대	지휘자	오르가니스트	피아니스트	팀파니스트	찬양대	지휘자	피아니스트	
I 부	가브리엘	백경화	김현정11	박승기	윤주일	가브리엘			
II 부	할렐루야	류충기	차주연	김양언	윤주일	그레이스앤드벨	송재월		
III 부	임마누엘	유태왕	김윤지	이주희	윤주일	아멘관현악단	임범창		
찬양예배	베들레헴	임범창	안효주	박수강	윤주일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 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시 21:22)	지난주 성구		
영어예배	예루살렘								
수요 I 부									
수요 II 부	은 빛	박래경	김윤지	홍혜란					

**예배 및 집회시간 안내**

구 분	시 간	장 소	
주 일 예 배	I 부 예 배	오전 9시	본당
	II 부 예 배	오전 11시 20분	
	III 부 예 배	오후 2시	
	찬 양 예 배	오후 5시	
	English Worship	오전 11시 20분	8층(802호)
수 요 예 배	II 부 예 배	오후 7시	웨스트minster 홀
새 벽 기 도 회		오전 5시 30분(월 - 토)	본당

**교 회 소 식**


- ◆ 모임
  - 7월 권사회 모임 / 29일(주) 오후3시30분 101호(웨스트minster홀)
- ◆ 알림
  - 101호 예배 및 부서 모임  
중고등부 예배 : 주일 오전 9시-10시 / 신앙강좌부 : 주일 오후 12시40분
  - 102호 예배  
사랑부 예배 : 주일 오전 10시20분-11시
  - 403호 예배  
영아부 : 주일 오전 9시-오후 6시
  - 602호 부서 모임  
청년2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새가족부 : 주일 오전 10시20분
  - 603호 부서 모임  
소망부 : 주일 오전 10시-11시, 오후 1시-2시 / 청년1부(다락방모임) : 주일 오후 3시30분-5시
  - 609호  
에바다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30분
  - 701호 예배  
유초등부 연합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706호 예배  
유아, 유치부 예배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802호 예배  
영어예배부 : 주일 오전 11시20분-12시30분
  - 902호  
디아스포라부 성경공부 : 주일 오후 1시-2시
  - 금주 수요예배는 오후 7시, 101호에서 한 번 드립니다.
  - 세례식 신청 마감 / 8월 세례식이 8월19일(주) 저녁찬양 예배 시 있습니다.  
세례/입교/개종/유아세례/대상자 문답청원서 작성 및 신청 마감(사무국) : 8월 5일(주)  
문답총정리는 8월 12일(주) 1시에 (장소미정 추후공지) 있으니 대상자는 필히 참석 바랍니다.  
문답은 8월 12일(주) 오후 2시에 (장소미정 추후공지) 있습니다.  
\*기타 궁금한 사항은(세례교육부 010-7743-3223)로 문의바람
  - 의료 상담 / 이번주 상담은 정철웅(외과), 노선균(흉부외과) 입니다. 주일 오전 10시10분 - 오전11시까지  
다음주 상담은 최용준(한방), 공민호(신경외과) 입니다.  
1층 서적부에서 의료 상담을 합니다. ※ 전화 예약 010-8993-5558

“서울교회 새가족으로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14. 상담 안내 / 법률, 세무, 가정 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주일 오전 10시30분-오후 4시 (310호) ※ 전화 예약 010-2376-3892
◆ 결 혼 1. 장찬익 군(장호명, 차명제 씨의 아들)과 이정은 양(11교구 이용성 집사, 이난희 권사의 장녀) / 8월4일(토) 오후6시 캐나다 토론토

지난주 출석현황				
주일1,2,3부	찬양예배	교회학교	주일예배 합계	수요예배
835명	245명	213명	1,293명	135명
수입, 지출 내역보고(7/22)			(단위 : ₩)	

월 일	적 요	수 입	지 출
7월 22일	헌 금	22,175,000	
"	교회학교운영비		3,222,600
	선교비		300,000
	행사비		284,000
"	구제비		400,000
	경조비		300,000
	출 판 비		250,000
	복리후생비		85,900
	통신비		381,000
	차량유지비		661,000
	사무용품비		15,240
	소모품비		454,710
	세금과공과		2,637,720
	환경유지비		473,800
	수선유지비		556,800
	식당운영비		1,502,100
	합 계	22,175,000	11,524,870

 2018년 여름성경학교 · 수련회

부 서	일 정	장 소	주 제	강 사
청년1부	8/13(월)-15(수)	아가페타운	“치유하시는 하나님” (열왕기하 20:5)	심우진 목사
청년2부				
에바다부	8/11(토)	서울교회	“거룩한 교회, 다시 세상 속으로” (요 3:16-17, 창 12:3, 마9:35)	서명철 목사